

포항 문화

취재 편집실

이번호부터는 지역의 문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다양한 문화 작품,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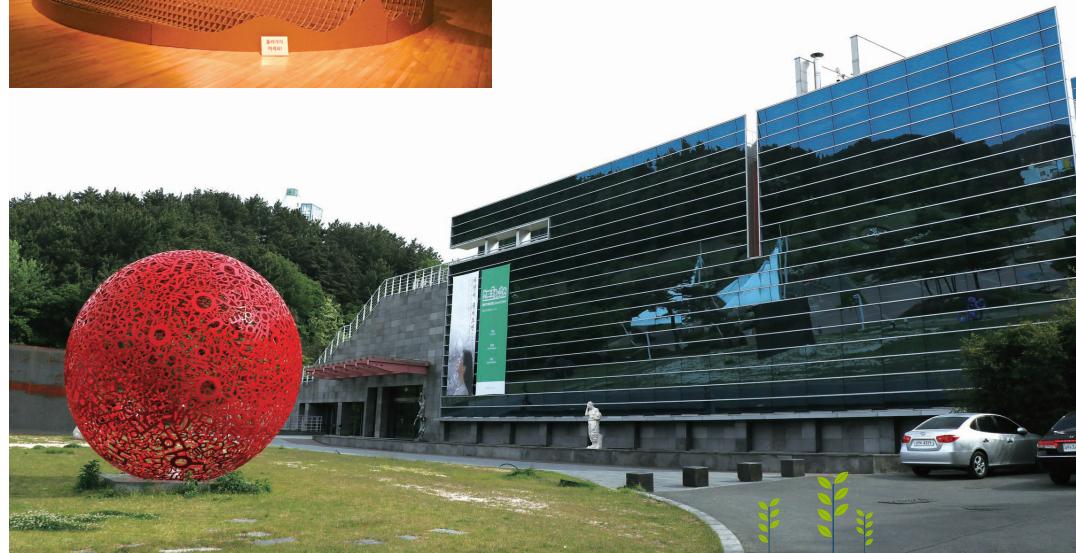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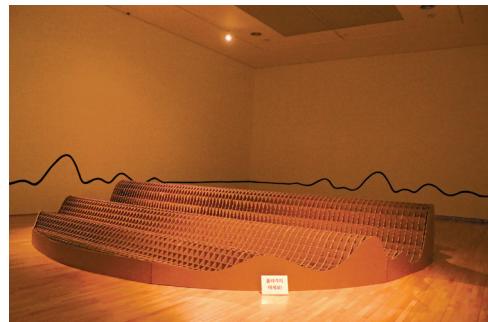
철의 강인함과 예술의 아름다움,
그리고 문학의 정신이 두루 빛어낸 포항 문화.



포항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POMA : Pohang Museum of Steelart, 2009 개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내에 있어 인근 영일대 해수욕장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미술관 스스로 포항문화의 근간인 Steel을 테마로 Steel Art 컬렉션과 전시기획에 주력하는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미술관’을 표방한다. 철을 재료로 하는 예술작품을 주로 다룬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2019.9.7.~10.5 개최 예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 당시(2019.5)에는 〈SOFT HOUSE, beyond Steel〉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후, 포항의 지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건축형식으로 풀어낸 설치미술 전시회다. 특히, 외부요인으로 ‘집’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철, 유리, 콘크리트 등 무거운 건축 재료의 위험성과 ‘영구하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으며 유연한 건축 재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지역 이슈를 반영한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기획전으로 기억되며, 미술관에서는 이외에도 지역미술계의 거장 장두건 탄생 100주년 기념전, Steel Craft 라이프스 타일전 등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다.

초현 장두건

포항 미술의 거장, 초현 장두건

포항시립미술관에 별도 전시 공간이 마련된 초현 장두건(草軒 張斗建, 1919~2015) 화백.

장두건 화백은 1918년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 흥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세의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동경 태평양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집안 반대로 명지대학 법과를 졸업하여 미술공부를 포기하지 않다가 39세에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르 살롱전에서 ‘내려다본 식탁(1958)’이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화단에 입문했다. 1960년대 귀국 후 미술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나의 작품은 그 대상이 대자연과 현실에 있다. 작품은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일상의 소재를 미술에 담아 **한국 구상미술***의 대가로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저서로 ‘삶은 아름다워라’라는 회고록이 있으며, 유화작품 60점 등을 포항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미술관은 매년 ‘장두건미술상’을 공모하여 포항미술의 초석을 다진 작가의 가치를 기리고 지역 미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표작 : 〈투계, 1975〉 〈장미의 꿈, 1990〉 〈세월, 1997~2000〉 〈학들의 낙원, 2002〉 등

* 구상미술 :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여러 대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미술로 일반적으로 추상미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

철문(鐵文)도시



철문(鐵文)도시 포항, 포항 문학의 자취

지난해 말 포항시는 법정문화도시 예비지정을 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5년간 최대 200억)을 받게 되었다. 이에 포항시는 단순히 산업 혹은 소재로서의 철에서 벗어나 철에 담긴 인문적 가치와 철 문화를 재해석한다는 취지의 ‘철문(鐵文)도시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준비 중이다. 아래 몇 가지 중요한 발자취를 쫓다보면 앞으로의 ‘문화도시 포항’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첫 시작으로 지역의 포항문화재단에서는 인문활동 프로그램인 ‘新 입암별곡’을 기획했다. 이는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거장 노계 박인로(盧溪 朴仁老)선생이 포항 북구 죽장면에 위치한 입암서원(立岩書院)과 그 주변 입암계곡의 절경 28경을 읊은 시 ‘입암별곡’에서 유래했다. ‘산이 반 쯤 꽃으로 만발할 때, 여헌 선생을 청하노라’라는 구절은 입암의 절경에 취해 이곳에서 학문을 나눈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착안해 명사 초청 인문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육사의 시 ‘청포도’. 청년 이육사가 일월지 언덕에서 영일만 바다를 바라보며 지은 시 ‘청포도’를 떠올리며 매년 9월 초에는 포항 청림동의 청포도 문학공원에서 ‘청림 청포도 문화축제’가 열린다. 이육사 백일장, 청포도 사생대회, 창작 시극공연 등을 통해 이육사 문학정신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경주 건천 출신의 한국의 대표시인 박목월(朴木月·1915~1978)도 포항을 무대로 몇 편의 시를 탄생시켰다. 유월의 어느 날, 고향 경주에서 비포장길 덜컹대는 버스를 타고 동해가 보이는 청하까지 맞선을 보려 간 인연을 시로 표현한 ‘청하(淸河)’와 민초들의 힘든 신산(辛酸)한 삶이 녹아 있는 ‘기계(杞溪)장날’이다.

청하는 포항 월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푸르고 신비한 감각을 살려냈으며, 기계 장날은 작가 아내의 근무지가 포항 북구 기계면에 있어 이곳을 자주 다니면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시를 탄생시켰다.



포항에서 활동한

한국 수필문학의 대가 한흑구(韓黑鷗, 1909~1979) 작가.

1909년 평양에서 태어난 작가는 광복 후 1945년 월남했다. 이후 수필 창작에 주력하면 1948년에 서울에서 포항으로 거처를 옮기고 포항 수산초급대학(현 포항대)의 교수로 활동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폐디스토마를 앓던 작가는 바닷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요양하라는 권유 등이 배경이 되어 포항으로 왔다고 한다.

* 사진 출처 :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 포항시문화관광



그는 ‘최근의 미국 문단(1947)’ 등 미국문학 및 작가론에 대한 평론뿐만 아니라 ‘동광’, ‘개벽(開闢)’ 등에 흑인의 시를 최초로 번역·발표했다. 대표작 ‘보리(1955)’와 수필집 ‘동해 산문(東海散文(1971))’ 외에 100여 편의 수필을 남겼으며, 최근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바치는 한흑구 작가의 시 ‘잡혀간 님’이 최초로 발굴·공개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자연물로부터 소재를 가져온 서정적인 문장, 산문시적 구성의 아름다움, 생명의 존엄성을 담은 메시지, 작품에 일관하는 인생에 대한 관조 등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한국 수필문학이 창작 문학의 본령으로 자리를 굳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 현재 수필 보리의 주무대인 호미곶 구만리 보리밭(구 구만리 마을회관)에 흑구 문학관이 있으나 도시 외곽에 방치되어 있어 도심 이전 등을 논의 중이다.

〈포항문화가 궁금할 때〉

포항시립미술관 – <http://poma.pohang.go.kr>

포항시문화관광 – <http://phtour.pohang.go.kr/phtour>

포항문화재단 – <https://phcf.or.kr/kr/main.do>